

# “수수료 없이 펀드 투자” 한화자산운용 펀드 직판 앱 ‘파인’ 은행 계좌 연결로 편리하게 펀드 가입



한화자산운용(대표이사 김용현)이 직접 판매 애플리케이션(이하 직판 앱) ‘파인’(PINE)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파인은 한화자산운용이 오랜 시간 쌓아온 펀드 운용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이 결합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다.

고객은 파인 앱을 통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한화자산운용의 펀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 계좌 연결만으로 편리하게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펀드를 설계한 펀드매니저가 직접 펀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파인’을 통해 앞으로 펀드의 주요 고객층이 될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 고객으로 ▲ 믿을 수 있고 ▲ 편리하며 ▲ 업계 최저 보수의 펀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직접 시장 상황과 타깃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선별한 후 라인업해 더 믿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화자산운용 펀드 전문가가 선별한 7개의 펀드만을 ‘파인’을 통해 선보인다. 또 펀드 상세페이지에서 수익률과 자산구성, 보유종목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펀드매니저레터’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들이 직접 펀드에 관해 설명하는 창구도 마련한다.

편리함에 민감한 MZ세대를 위해 투자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파인

은 신분증 촬영과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1원 송금 방식으로 주거래은행 계좌를 연결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이 큰 연금저축 계좌도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개설이 가능하다.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파인의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지는 것이다.

판매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판매보수가 저렴해질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화자산운용은 파인을 통해 리테일 투자 클래스 중에서는 업계 최저 판매보수로 펀드를 선보인다. 그간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펀드 직판 앱을 선보인 적이 있었지만, 대형 운용사가 펀드 직판 앱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은 “파인은 만물상처럼 모든 펀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들이 선정한 꼭 투자해야 하는 펀드를 라인업했다”며 “투자자가 상품 전문가들과 펀드매니저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마라톤에서 실제 선수가 달리지만 완주를 위해서 러닝메이트가 도와주듯이 파인이 ‘파인 메이트’를 돕는 투자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면서 “MZ 세대들에게 투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